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8년 9월 26일 수요일 제760호

2018 Ottawa Economic Forum(Sep.19-20)



OKBA와 친구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OPEN



돋보기 검색창에서 'OKBA' 검색 후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TALK



OKBA

검색창에 OKBA를 입력하세요.



OKBA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상품 출시!

2018년 10월 1일부터

\$10 즉석 복권

더 큰 당첨금
1등상 \$1백만

긱으십시오

\$10 - \$150,000 즉석 상금 또는 SPIN 상금

잘 지켜보십시오

SPIN 상금은 고객용 화면에 표시되며 \$10부터 \$150,000까지의 상금 또는 **BIGGER SPIN**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돌리십시오

BIGGER SPIN에 당첨될 경우, 토론토에 있는 OLG 당첨금지센터 (Prize Centre)에서 실제 **BIGGER SPIN** Wheel을 직접 돌려 \$500,000부터 \$1백만까지의 보장된 상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평균 당첨 확률
3.66대 1



스포츠 베팅 한도 & 고객 입회 원칙

소매업자정책매뉴얼(Retailer Policy Manual - RPM) 제 4.13절에는 스포츠 베팅 한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 베팅 한도는 1개 소매업자당, 1개 스포츠 복권 상품당, 고객 1인당(또는 1개 단체고객당) 1일 \$100입니다. 이 정책을 지키지 않는 소매업자는 RPM 제 8.8절에 명시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포츠 복권 고객이 나중에 매장에 와서 구매할 테니 자신이 매장에 없을 때 하루 종일 주기적으로 스포츠 복권을 출력해달라고 소매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위의 규칙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를 위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저희는 제 4.11절 - 고객 입회 원칙(Customers Must Be Present)에 따른 처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RPM 제 8.7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OLG는 이제 닥트(Data Analytics and Retrieval Technology - DART)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복권 단말기의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복권

거래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저희가 소매점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며, 이 방문은 정책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장의 복권 판매 직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정해진 스포츠 상품 한도를 초과 판매하거나 매장에 있지 않은 고객을 위해 복권을 출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OKBA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 Publisher

Jae Gyun Shin (신재균)
Tel (416)789-7891(ext.70)
e-mail.sjg0061@gmail.com

■ General Manager

Don Cha (전무 차동훈)
Tel (416)789-7891(ext.30)
e-mail.doncha@okba.net
▶ 대정부활동 및 실무 총괄

■ Business Manager

Sunny Chon (실장 전승원)
Tel (416)789-7891(ext.21)
e-mail.sunnyc@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Business

Brian Lee (이주녕)
Tel (416)789-7891(ext.26)
e-mail.brianjin1108@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Accounting

Sei Hwan Kim (김세환)
Tel (416)789-7891(ext.24)
e-mail.accounting@okba.net
▶ 리베이트
▶ 대외 A/P, A/R
▶ 실험사무 관리

■ Reporter

Kwangil Kim (실장 김광일)
Tel (416)789-7891(ext.23)
e-mail.tedkim@okba.net
▶ 실험뉴스 취재
▶ 기사제보
▶ 홍보사항

■ Design

Mi Young Hyun (현미영)
Tel (416)789-7891(ext.22)
e-mail.mimihyun@okba.net
▶ 광고 / 편집 디자인
▶ 인쇄 및 홈페이지 관련
▶ 광고문의

■ Website

www.okba.net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Canadian Thanksgiving Day (Oct. 8, 2018)

캐나다에서 설득력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지만, 캐나다 추수감사절은 탐험가 마틴 프로비셔가 등장했던 15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평양으로 통하는 북로를 발견하려 했던 프로비셔는 추수감사절을 열었다. 이것은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잉글랜드에서 긴 여행을 하는 동안 폭풍과 빙산의 위험으로부터 생존한 것에 대한 감사였다. 그의 북극으로 세번째 여행이자 최후의 여행에서, 프로비셔는 배편 섬(오늘 날의 누나부트 준주)에 있는 프로비셔 만에서 신에게 감사를 드리기를 위해 로버트 윌폴 목사가 개최한 예배를 통해 종파를 극복하는 정제화된 의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원은 종종 17세기 초 탐험가 사무엘 드 샹플랭과 함께 뉴프랑스에 온 프랑스 개척민들이 성공적인 수확을 경축한 행사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이 지역의 프랑스 개척민들은 수확기 말에 전형적인 연회를 열었으며, 그 지역의 인디언들과 식량을 공유하며 겨울 시즌 내내 지속하였다. 뉴잉글랜드에서 캐나다에 정착민들이 도착하자, 늦은 가을 추수감사절 경축행사는 보편화되었다. 아일랜드계, 스코틀랜드계, 독일계처럼 캐나다로 새로운 이민자들도 그들 자신들의 전통을 추수감사절 경축행사에 더하게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월요일에 기념한다.

C O N T E N T S

신재균 회장, UKCIA회장 공식 임기 시작 | 04 ~ 07, 13

세인트 지미 커피사업 성공위한 숙지사항 | 08 ~ 09

알버타 최저임금 최고 卍 | 10 ~ 11
예 · 결산 정기이사회 공고

조합건물 사면 조합이 살아납니다! | 12

육포 슬림집으로 대박치는 콘아그라 | 15

오타와 로비 주요 장면 | 16

17 | 퀘벡의 편의점 Au Coin Duluth 이야기
(20면에 계속)

18 ~ 19 | 교양 상식 : 雙曲線 그린 운명의
두 작곡가

20 | 퀘벡의 편의점 Au Coin Duluth 이야기
(17면에 이어)

21 | OKBA 지구협회장 전화번호
2018년 협회 주요 사업

22 | Directory

9월 20일 오타와 경제포럼 행사 맞춰 신재균 회장 UKCIA회장 공식 임기 시작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 총연합회(United Korean Commerce and Industry Association of Canada ; 이하 총연 또는 UKCIA)가 개정 정관에 따른 첫 연차총회를 가졌다.

지난 9월 20일 오타와 연방 국회의사당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UKCIA 경제포럼 행사와 함께 같은날 치러진 총회에서는 협회 신재균 회장이 공식적으로 총연 회장에 취임하며 회의 후반부를 주관했다. 전반부 결산 보고까지 전임 BC실업인협회(BCKBA)박진철 회장이 UKCIA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관했고 이어서 두 신·구 연합회장의 이취임 인사말이 있었다.

신회장은 “자신의 임기를 절반이나 단축하며 용단을 내려 UKCIA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박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운을 뗀 뒤 “거의 모든 한인 단체들이 내분을 겪는 이유가 봉사보다는 금전적 이해득실에 얽혀 제 기능을 못하는 사실에 깊이 주목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 UKCIA연차총회가 오타와 연방 국회의사당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회의가 종료된 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이하 (약칭) 왼쪽부터 B,C협회(BCKBA)김성수 부회장, 에드먼튼협회(EKBA) 김용철 이사장, 김성렬 회장, 캘거리협회(CKBA) 박홍재 회장, 매니토바협회(MKBA)이동기 회장, UKCIA/온주 협회 신재균 회장, B,C협회 한용 총무이사, 김영근 회장, UKCIA/BC협회 전임 박진철 회장, 매니토바협회 박우진 사무장, 온주협회 이성호 이사장.

“OKBA도 지난 세월 심각한 불화로 대 공급사 위상과 신인도 추락을 겪었다”고 솔직히 밝히고는 “거의 모든 지역 실업인협회가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전국규모로 거듭 새출발을 하는 만큼 단합하는 자세가 더욱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오전 경제포럼행사, 한국 전참전용사비 헌화식, 의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네트워킹 시간, 상원 본회의 방청 시간 등을 숨가쁘게 소화한 후 오후 2시부터 UKCIA 관계자들만 모여 연차총회를 진행했다. 이

하 총회의 주요 내용과 의결사항등을 정리, 소개한다.

●정관 최종 확정

이미 지난 4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OKBA본부협회에서 열린 총연 임시총회에서 개정 정관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지만 재확인하고 마지막 수정 작업을 가졌다. 달라진 것은 없으며 표현에서 ‘전임’이라는 말을 ‘직전 임기’라고 수정했다. 전임은 현역 이전의 역임자 모두를 포괄할 수

SIGN UP WITH MONERIS
AND GET **PREFERRED RATES**
THROUGH THE OKBA MEMBERSHIP.

moneris.com/associations
1-877-789-5335

Moneris
BE PAYMENT READY

실업인 협회 단체보험

KMI Brokers Inc.

집/자동차: 기준보험료 대비 **15%~20%**할인
비즈니스: 담배도난 무제한 보상 가능

오중찬 : C) 416-602-7083
jc@kmibrokers.com

있기 때문에 현역 바로 직전의 임기를 수행한 자에만 국한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정리했다. 따라서 새 정관 4조 1항의 “OKBA: 회장, 전무, 전임 UKCIA 회장단...”에서 전임은 ‘직전 임기’로 수정해 현재의 총연회장 바로 직전의 총연회장만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이사회 관련 규정도 7조 1항 “...UKCIA 전임 회장단...”이라고 한 것도 전임이 직전 임기를 가리킨다.

집행부 관련 규정 8조는 집행부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회장 외에 부회장 2명, 간사(총무이사) 1명, 재무(재무이사) 1명, 사업홍보담당(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2명의 부회장 중 1명은 BCKBA 회장이 당연직으로 임무를 부여받기 때문에(9조 4항) 남은 1명의 부회장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추천을 거듭 총용하다가 신임 총연회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른 담당 이사들도 마찬가지로 신임 회장에 일임해서 인선도 록했는데 이는 9조 5항 규정에도 회장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회장은 각 부서 담당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집행부 조직에서 ‘자문위원회’의 범위는 역대 UKCIA 회장으로 한정되었다. 원안은 자문위원회가 전임회장단 및 운영이사로 표현돼 앞서 언급한 ‘전임’의 범위 해석 논란을 낳는다. 또한 실질적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속없이 지나치게 규모만 방대해질 우려가 있어서 조직 슬림화를 위해 ‘역대 UKCIA 회장’으로 국한하기로 했다.

● 결산 보고 통과

박진철 회장이 이봉섭 전임 UKCIA 회장 겸 전임 퀘백실업인협회 회장으로 부터 인수받은 통장 인수인계 자료와 일부 실사를 통해 확정지는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잔액은 594.60 달러였다.

쉽게 말해 박 회장이 이 회장으로 부터 물려받은 UKCIA 잔여 공금은 600여 달러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정기총회가 열린 이날까지 약 9개월 동안의 수지 내역은 수입이 13,765.03달러, 지출이 5,256.11달러이며 차액에 전임자로부터 인수받은 통장잔액 594.60달러를 보태면 9,103.52달러가 총 잔액이다.

미수금으로는 연회비 500달러가 미납된 켈거리와 뉴브런즈윅 실업인협회 2018년치 합산 1,000달러가 있으며 새로 가입한 OKBA 연회비 5,000달러 약정금과 작년도 켈거리실업인협회 네슬레 리베이트 분이 있어 이 금액들이 납입되면 전체 보유액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오타와 경제포럼과 연차총회 행사를 치르는데 소요된 항공료와 숙박비 등 출장비 약 7,000여 달러(정산은 추후 확정될 예정)와 10월 모국에서 열리는 한상대회 산·구 회장 출장비 지출을 감안하면 공금 보유고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박회장은 결산 보고를 마무리하며 전임자로부터 받은 증빙자료의 미진한 부분, 누락분 등을 세세하게 파고들며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도 적절치 않아 적정선에서 종결하고 인수 받은 점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고 참석자들 모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향후에는 총연 회장을 OKBA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기 때문에 협회 회계 전문 인력을 통한 처리가 이루어져 투명하고 명확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회계 관련해 재정 압박을 감안해 지역 단위 골프행사 지원비는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 지출하고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는다.

TouchCash Inc. ATM & POS

한인의, 한인에 의한, 한인을 위한

Best People
Best Service
Best Results

타회사의 ATM, POS(Debit)를 계약하시고 문제가 많으신 분
새로 ATM, POS(Debit)를 구입계획하고 계신 분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TouchCash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가
최대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100% Smart Chip (EMV) Ready

Internet & Phoneline 겸용

Showroom : 820 Denison St. Suite #3, Markham, ON L3R 3K5
Call Today 1-866-391-3950 / Fax 905-513-0919

● 차기 총회 개최지

정기총회 개최지를 항상 오타와에서만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해마다 장소를 달리하는 지역별 순회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오타와 경제포럼 행사와 물려 연아마틴(김연아) 상원 의원의 지원 및 주캐나다 대사관의 후원을 안고 연방 국회의사당에서 순조롭게 행사를 치르는 이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당분간은 오타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실제로 사업 관련해 총연이 다루는 주제가 소자영업에 대한 입법가들의 인식 제고와 든든한 네트워킹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치의 본산인 수도 오타와에서 개최하는데 따르는 실익과 편리성은 매우 크다. 아울러 예산도 일정부분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시기도 거의 매년 5월에 포럼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이 시점에 여는 것으로 했고 재정 여력을 보가며 정기 총회 이외에 임시총회도 개최한다든가 지역이 돌아가며 추가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줬다.

일단 내년 총회는 정기총회 한번으로 하고 장소는 오타와, 시기는 5월 중 경제포럼을 겸해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 수익 모델 창출 향후 과제

신임 신재균 총연회장은 회의 후반을 주관하며 긴축예산 운영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이 전체 수입의 가장 큰 축을 이루며 여기에 연회비가 보태지는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수익 창출이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당분간 억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OKBA의 선도적 지위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개발해내는 것은 신임 총연회장의 지도력에 달려 있다고 듣기에 따라서는 은근한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격려성 발언을 했다. 불과 몇십분 전까지 총연 회장을 수행한 박진철 전임회장은 UKCIA가 정관개정까지 해가며 새로운 출발을 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OKBA조직이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대 공급사 협상력에서 전체 한인 편의점을 대표해 주도권을 발휘, 전체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재균 회장은 “충분히 의미를 알고 있으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적 어려움도 감안해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당부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해 현재 OKBA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급사 제휴 사업들로 옮겨가면서 실질적 사업 정보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OKBA프로그램스토어 사업, 커피사업, 기타 다양한 사업의 전국 확대 전망에 대한 타진도 있었다. 어려운 편의점 업계, 특히 한인들이 운영하는 독립 편의점 업계의 가중되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새마음 새조직으로 출발하는 UKCIA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며 회의는 4시 경에 종료됐다.

〈 기타 활동 〉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던 UKCIA 연차총회 참석자들은 이날 아침부터 다른 일정들도 바쁘게 소화했는데 간략히 행사를 스케치한다.

상원 본회의장 방문


아침에 국회 의사당 본관 상원회의장 방문이 연아마틴 상원 의원의 직접 안내로 이뤄졌다. 아직 회의 전이라 텅빈 회의장을 구석구석 살필 수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의원이 이날 하루 일정 진행까지 세심하게 설명했다. 또 의원은 5명의 인턴 직원들까지 투입해 의원이 회기 중이라 잠시 잠시 업무를 보느라 자리를 비울 때도 이들이 예방자들의 지원과 안내에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조치해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 경제포럼에 함께 참가

하기 위해 온 ‘세계한인무역협회 토론토 지회(World OKTA Toronto) 회장’을 비롯한 타 지역 OKTA 관계자들까지 포함해 20명이 넘는 인원이 경청하는 가운데 연아마틴 의원은 “한국을 민족적 배경으로 둔 나의 정체성을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면서 경제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인 사회의 위상이 캐나다 주류사회에서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힘껏 도와왔으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의원은 특히 부쩍 늘어난 한인 정치인과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발 정치후보자들에게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한인 동포들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캐나다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하 양원제 국회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다. 상원 의원 정원은 105명이다. 연아마틴 의원은 보수당 상원 의원이며 보수당 정권의 스티븐 하퍼 총리 시절인 2009년에 임명돼 2011년에는 여당 상원 원내 부총무, 2013년에는 여당 상원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현재는 정권이 자유당으로 바뀌어 야당 상원 원내 수석 부대표(Deputy Leader of the Opposition) 자리를 맡고 있다. 그녀는 또, 지난 2011년부터 한카의원친선협회(CKIFG; Canada-Korea Inter-Parliamentary Friendship Group) 공동 의장직을 맡아오며 두 나라 정치인들의 교류 협력과 친선도모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상원 본 회의장을 방문한 후 오후에 UKCIA 총회 개최 직전에 잠시 시간을 내 상원 법안 심의 회의 모습을 방청할 수 있었다.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재심의하여 찬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주 임무다. 본 회의 개최에 앞서 UKCIA 관계자들이 예방했음을 소개받으며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연아마틴 의원의 배려였다.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p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 border-radius: 5px;">교통사고, 개인 상해</p> <p style="font-size: small;">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무 과실 보상 소송</p>	<p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 border-radius: 5px;">교통위반 티켓</p> <p style="font-size: small;">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뺑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p>	<p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 border-radius: 5px;">형법</p> <p style="font-size: small;">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p>
--	---	--

* 형법	* 가정법	* 민사소송
* 소액재판	* 세권, 세입자 분쟁	* 주류 판매법
* 복권 판매법	* 담배 판매법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2018 한카 경제 포럼

2018 Canada-Korea Economic Forum

상원 회의를 둘러보고 연아파틴 의원과의 친밀한 대화를 나눈후 곧바로 3층 소회의실에서 한카 경제 포럼 시간을 가졌다.

연아파틴 의원 보좌관과 인턴 직원들의 통역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아래 포럼은 매우 활기차게 진행됐다. 주로 질의응답 형식이었으며 제 1야당인 보수당 앤드류 쉬어(Andrew Sheer) 당수의 수석 경제 정책 보좌관 헨드릭 브레이크(Hendrik Brake)씨가 성실하게 답변에 임했다. 예상했던 대로 UKCIA측은 소자영업, 특히 마이크로 소자영업소 처우개선에 대한 주문을 쏟아냈으며 무역인협회측에서는 투자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도 도마에 올라 무리한 정책이 가족경영의 영세 자영업에 큰 주름을 만들고 있음을 따갑게 지적했다. 담뱃세 인상이 담배 가격 인상을 낳고 이는 암시장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담배 세제 개혁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보수당인만큼 불만 해소에 부응하는 답변이 이어졌고 잠시 짬을 내 배석했던 연아파틴 의원도 내년 연방 총선에서 보수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영세 소자영업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은 아울러 이미 하원에서 통과돼 상원으로 넘어온 법안 C-69 저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지나치게 환경규제에 집중하며 비즈니스 활성을 가로막을 우려가 큰 법안으로 기특이나 힘든 스톱 비즈니스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연방중소기업/수출지원부 리샤르 에버트 차관도 뒤늦게 포럼장에 참석해 정부 여당의 소자영업 정책을 애써 홍보했다. 트뤼도 총리가 금년 7월



메리 응(Mary Ng)의원을 중소기업 장관에 임명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의 소자영업에 대한 관심을 우회적으로 부각했다.

한국전 참전 전물용사비 헌화식

90분간 진행된 경제 포럼이 끝나고 의사당 인근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한국전 참전 전물용사비에서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들과 함께 헌화식을 가졌다. 90세 전후 7명의 노병들은 꽃꽂한 자세를 잃지 않고 양국 국기를 받쳐들고 양쪽에 기수로 기립했고 박진철 회장과 신재균 회장이 미리 준비돼 있는 화환을 각각 1개씩 헌화하고 목뿔을 올렸다. 연아파틴 의원
(13면에 계속)

1 SOLUTIONS

DATA CORPORATION



POS, ATM, Debit and Credit Card Services Company



FULL INTEGRATION SYSTEM
일체형 연동 시스템

Tel 1.888.554.7355

www.1solutions.ca / email : info@1solutions.ca

P / O / S S / Y / S / T / E / M

- **데빗 단말기 연동**
Debit terminal device integration
- **한국에서 설계 제조 및 테스트 됨**
Designed, manufactured, and tested in Korea
- **OLG 온라인, 스크래치 티켓, Winning Ticket, 바코드 형식 시행**
OLG Online, Scratch Ticket, Winning Ticket Barcode System Implementation
- **클라우드 서버 사용**
Cloud Server to download and upload data
- **POS System을 이용해 매장의 모든 정보를 "Back Office" 소프트웨어에 저장**
POS System to store all the information of the store in "Back Office" software
-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클라우드 서버의 보안성 보장과 비교할 수 없는 서버 속도**
We use world's most respected cloud server provider to ensure data security and unparalleled server speed
- **LCBO Software 지원**
LCBO Software Support
- **모든 장비, 소프트웨어, 트레이닝, 설치를 총 \$2500**
Fully equipment, including software, training, and installation for only \$2500
- **모든 영업 운영과 경영을 포스로 가능**
All sales operations and store management are made possible through our POS system

The best rates for the best customers

Credit Card

Business Type	Discount Rate	Transaction Fee	Brand Fee	Non-Qual
Convenience Store	1.40%	No Charge	0.1%	0.3%
Other Type of Business	1.40%	No Charge	0.1%	0.3%

Debit Card

Business Type	Chip & Swipe	Tap & Flash
Convenience Store	3.65 cent	5.65 cent
Other Type of Business	3.65 cent	7.15 cent

- NO STATEMENT FEE (무료 우편 또는 EMAIL 발송)
- NO HIDDEN CHARGES
- NO CONTRACT
- SIGNING BONUS \$300
- DEBIT MACHINE 문제 발생시 - TECH SUPPORT 24/7
- YOUR SATISFACTION IS OUR GOAL

Office **905.560.4511** / Fax **1.888.554.0409**





세인트 지미 커피사업 성공위한 숙지사항



小貪大失, 타 제품 은밀한 거래 절대 피해야

세인트 지미(Saint Jimmy)커피 사업이 시작 초기단계에서 몇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며 공급사와 회원 양측 모두의 윈윈 영업 모델을 제대로 잡기에 이르렀다. 사실 비싼 제품도 아닌 55센트 마진으로 승부를 보는 사업인 만큼 회원들도 사소하지만 디테일에 강해야 스마트한 운영 노하우를 갖출 수 있다. 서양 격언에 “신은 디테일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s)고 하는데 요즘 여기서 파생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는 유행어도 있지 않은가. 이하 몇가지 회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 소개한다.

● 판매물량 계산법

현재 커피 잔 당 가격은 1.59달러로 통일돼 있다. 이전에는 1.59달러와 1.99달러로 이원화돼 있었고 판매수량 파악도 기계 버튼 누른 횟수와 재고량을 상호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복잡했다. 이제 동일 가격으로 일원화돼 커피 머신을 통한 수량 파악은 하지 않고 오직 판매대에 진열돼 있는 재고 수량만 헤아려 판매수량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보이스를 발급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스 진열대에 놓여 있는 박스개수를 기준으로 회



사 측이 몫을 챙긴다는 사실이다. 한 박스에는 12개의 캡슐이 있다.(capsule : 커피 한잔 만드는 날개 1개) 회사측이 판매수량을 헤아릴 때 개봉한 박스에서 몇개가 남았는지까지 일일이 날개 단위로 수량파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복잡한 일거리이며 회원 역시 이런 수량 파악이 일일이 맞는지 상호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단 개봉된 박스도 무조건 다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서 판매수량을 헤아린다.

예를 들어 처음 시작때의 박스 진열대 박스 개수가 100개라고 가정하자. 회사 직원이 와서 보니 줄어든 박스가 20개이고 날개가 몇개 비는 개봉된 박스가 3개 진열돼 있다. 이 경우 모두 23개가 판매된 것으로 보고 23박스 X 12개 X \$1.04로 계산해 287.04 달러의 인보이스가 회원에게 발급되고 회원 구좌에서 이 금액이 인출된다. (개당 소비자 가격 \$1.59에서 회원 몫은 \$0.55, 회사 몫은 \$1.04) 참고로 세인트 지미와 같은 손님 셀프 서브로 운영되는 커피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커피전문점에서는 커피 제공에 인력의 서비스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여기서 회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3개 박스는 아직 다 팔린 것도 아니고 일부 몇개씩만 팔렸을 뿐인데 통째로 다 팔린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만인데 하등의 불만이 있을 수 없다. 개봉되고 남

협회 문의
 (416)789-7891
 www.saintjimmyscoffee.ca
The fastest growing coffee service in North America

순수 캐나다산 육류제품
GREAT CANADIAN MEAT
 9월~10월
 스페셜
 Regular \$2.00/per pack
 Promotion \$1.62/per pack
Promotion Retail 2 for \$5
 1390 Hopkins St., Whitby (905)666-9395

은 캡슐은 키오스크 상단 날개 진열대에 계속 보충 진열하며 언젠가는 팔릴 것이기 때문에 시차가 약간 발생할 뿐 손해가 아니다. 쉽게 말해 개봉된 박스는 12개가 다 팔렸다고 간주하고 미리 회사측에 선납하고 남은 날개 판매는 다시 중복 청구되지 않고 회원들에게 온전히 회수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는 아니겠으나 손님 중에는 박스채 사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이라 박스로 사서 자기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소비하는 경우다. 이 경우 회원 입장에서는 날개로 12잔 커피 판매하는 것에 비해 이윤은 매우 적어진다. 공급가가 박스 당 12.48달러이며 소비자 판매가는 13.99달러로 한박스채 팔아 1.51달러 이윤을 거둔다. 날개 12잔의 경우는 6.60달러이니 이윤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사입장에서는 회원 이윤폭 감소와 상관없이 12 X \$1.04로 계산하기 때문에 회사가 챙기는 몫은 소매업주가 날개로 팔든 박스채 팔든 무관하게 변화를 받지 않는다.

● **개봉된 박스 보관 요령**

위의 계산 방식을 고려할 때 개봉된 박스는 박스 진열대에 진열할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 하단 보관대 안에 보관해야 할 것이다. 이래저래 개봉 박스는 다 팔린 것으로 간주하고 재고 파악 및 판매물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개봉된 것은 보관대 안에 치워놓고 필요한 만큼 꺼내 키오스크 상단 날개 진열대를 채워주면 된다. 그렇지 않고 개봉된 박스를 계속 박스 진열대에 두면 판매물량에 계속적으로 계산될 우려가 있으니 게으르면 회원 손해다. 무조건 박스를 뜯었다 하면 키오스크 보관대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 **부정직한 판매 절대 금지**

아직 가입 회원들에게서 드러난 사례는 아니지만 타민족 업소 몇군데에서 압착한 것을 하다가 들통이나 사업 제휴도 깨지고 큰 위약금까지 물었다. 원가를 줄여 이윤폭을 늘이겠다고 다른 도매업체나 할인 대형 소매업체에서 벌크로 사다가 업주만 아는 곳에 감춰놓고 손님에게 은밀히 쥐어 주며 싸게 판매하는 공색하기 짝이 없는 방식이었다. 이를 보고 어느 손님이 회사측에 알렸고 회사측 직원이 미스터리 쇼핑을 나와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 달미가 잡혔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리 큰 가격의 제품도 아니고 몇십센트 마진보는 아이템을 가지고 욕심을 낸 것인데 사람도 추잡해지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큰 돈 벌지도 못할 일이다. 세인트지미측은 또다른 부정직한 비한인 업소와 법정 싸움을 준비 중인데 승패는 볼 것도 없어 보인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다.

이상이 세인트 짐 커피사업과 관련해 회원들이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당부하는 사안들이다. 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의 계약 기간은 3년이며 계약 기간 중에 업소 매매 또는 폐업과 같은 경우에는 사정을 감안해 최소 2개월 전에만 회사측에 통보하면 가급적 계약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고 융통성있게 처리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파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측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반드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이런 것을 떠나 제휴 관계를 정직과 신뢰로 이어가겠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하겠다. ■



Authorized Zippo Dealer

원도매상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올해 14달러로 급격히 올려 편의점 업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으며 내년에는 예정대로라면 15달러로 오를 판이었다가 정권이 바뀌어 15달러 정책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임 더그 포드 수상이 백지화를 공공연히 말했기 때문에 편의점을 포함한 소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돌리나 싶다. 지켜볼 일이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신민당(NDP)이 정권을 잡고 있는 알버타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주가 될 예정이다. “우리는 이 정책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정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우리 알버타주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여성 그리고 근로자들의 주머니가 더 넉넉해지는 것이다.” 크리스티나 그레이 알버타 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10일 한 뉴스 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알버타는 지난 2015년에 최저임금이 시급 10.20달러였다. 이후 신민당(NDP)정권은 단계적으로 인상을 거듭하다가 작년에 13.60달러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알버타 제 1야당인 연합보수당(UCP; United Conservative Party)으로부터 일자리를 다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호된 비난을 받아왔다. 몇몇 싱크탱크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내에서 1만개, 많게는 2만 5천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그러나 장관은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는 소신을 강조하며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 효과로 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주장한다. “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근로자에게 약간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직률을 줄이고 직장에 대한 애착과 업무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장관은 이렇게 말하면서 “법정 최저임금 혹은 그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이나 업소들 중 많은 곳이 종업원을 오래 붙들 수 있고 교육훈련비용이 절감된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과 같은 여당인 신민당 데이빗 셰퍼드(지역구는 에드몬턴 중구)의 원은 이날 기자회견하던 날 몇몇 에드몬턴 상공인들과 최저임금의 변화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특화된 커피 체인점 테이블탑카페(Table Top Cafe)를 운영하는 브라이언 플라워즈씨는 “임금 인상은 모든 알버타 주민의 가치분 소득을 높이는데 필수불가결하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두개의 가게에 고용된 19명의 종업원들이 거의 모두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조금 올린다고 해야 전체 원가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뿐인데 반해 매출은 오른다는 말도 보탬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급 \$15

알버타 최저임금 최고 卍



▲ 알버타의 크리스티나 그레이 노동부 장관이 지난 2016년 6월 30일 최저임금을 오는 2018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대로 오는 10월 1일부터 알버타는 15달러 최저 시급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주가 된다.

최저임금 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찬반 시비가 뜨겁다 못해 과열된 나머지 시위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고 최근 모국에서는 최저임금인상 정책으로 뒷받침 되는 문제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야당 및 보수언론과 각을 세우며 대치 국면에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 때문에 굶어죽게 생겼으며 편의점협회 대표를 비롯해 소상공인 업주들이 청와대로 몰려가 시위를 벌여 소란스러웠다.

그런가 하면 이곳 캐나다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온타리오는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던 몇개월 전만하더라도 자유당 정권의 파격적 임금인상 때문에 논의가 아주 분분했다. 협회는 편의점살리기 SOS캠페인을 벌이며 자유당 정책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 중 하나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소득이 더 높아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 한국 정부에서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론 주장자들의 목소리와 많이 닮아 있다.



▲ 모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며 “최저임금 나를 잡아 가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편의점 업주들이 시위를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알버타는 오는 10월 1일이 되면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가 된다. 그레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20대 이상의 75%, 여성의 60% 이상, 아동의 33% 이상이 최저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통계를 밝혔다. 에드몬턴이나 캘거리같은 큰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 연 22,000달러라는 돈은 너무 작은 돈이라고도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불지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전체 알버타 경제가 활성화될지 지켜볼 일이다. ■

예 · 결산 정기이사회 공고

협회 정관 제7장 제21조 이사회 제1항 및 이사회 내규 제 4조 ‘회의’ 제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8/2019 회계연도 정기 이사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년 10월 11일 (목) 오후 2시
- 장소 : 본부협회 회의실
(175 The West Mall, Etobicoke)
TEL 416-789-7891 / Fax 416-789-7834

● 주요 안건

- 1) 2017 / 2018 회계연도 결산 보고
- 2) 2018 / 2019 회계연도 예산 보고
- 3) 내부 및 외부 감사 보고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이사장 이성호

온라인 건/강/식/품 도매 B2B

DAVIDWHOLESALE.COM

* 데이빗홀세일닷컴 연회비는 \$99입니다.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아이템, 콤부차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마시는 건강다이어트 유산균음료”



Bucha Drink
473ml
소비자가 \$3.99
도매가 \$2.42
+tax

*도매등록시 승인을 위해 비즈니스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승인 시간 후 구입가능합니다.

신규 취급점 / 판매점 모집

토론토 내 배달 가능 1 Case (473ml X 12 bottles)
GTA 지역 배달가능

{ 5가지맛 } Blood Orange / Grapefruit Sage / Guava Mango
Raspberry Pome / Yuzu Lemon

Natural products distributor B2B
DAVIDWHOLESALE.COM

그랜드 오픈
Special Gift
\$200 VALUE

When ordering online, apply the coupon code :
*쿠폰코드(온라인에서 사용) : **DWC20198009G**

Registration Bonus
Sign up and get \$200 off for your first purchase.
You can redeem only one coupon at a time of purchase.
*No cash value.

*오메가, 아시아, 각종 비타민 다양한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바로 도매가로 구매 / 200불 특별할인도 바로 받으세요!

NOT OPEN TO THE PUBLIC www.davidwholesale.com
Orders under \$200 before taxes and discounts are charged for shipping.

문의 : 416.419.3751 **데이빗홀세일닷컴**

조합건물 사면 조합이 살아납니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신재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협회가 조합 소유의 웨스트물 건물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 퍼지고 있는 여러 오해와 억측들을 불식하기 위해 이렇게 실험뉴스 지면을 통해 회원님들을 대하게 됐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협회의 조합 건물 인수안은 지난 6월 5일 개최됐던 제 3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고(재석 26명 중 23명) 이후 9월 협동조합 월례 운영이사회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결의된 사안입니다. 이제 조합 정기주주 총회에서 최종 결의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작년에 전임 집행부에서 협회 소유 모바일 건물을 매각했고 이후 제가 회장으로 취임해 대체 매장용 적정 건물 매입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유력 후보지들을 모색해왔었습니다. 동분 서주한 결과는 그러나 마땅한 물건 잡기가 용이치 않았으며 여러가지 여건을 고심 끝에 결국 조합 웨스트물 건물 매입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매장을 애용하시던 동북부 회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동쪽 회원 여러분의 소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진하나마 총력을 다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회가 모바일을 대체하는 제 3의 매장을 구하기보다 협동조합 건물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두 조직이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조합을 위한 대체 매장을 구한다면 조합측 추산으로도 100만 불이고 협회측이 건축으로 수립해본 것으로도 50만 불인데 이런 막대한 이전비용을 현재의 조합은 감당할 형편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무리한 투자를 해가며 제 3의 장소에서 모바일 대체 매장을 운영해 행여라도 영업이 부진하다면 웨스트물 본점까지 영향을 받아 존재의 기로에 설 우려가 있다는 것이 조합 운영진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같은 우려는 협회 이사회에서 운영이사장이 직접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객관적이고 신중한 정세 분석하에 조합 건물 매입이 추진되어 오는 저간의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건물을 협회에 매각하

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 인사들은 협회가 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합 건물을 매입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장이며 이미 이런 근거없는 주장을 주변에 퍼뜨리며 회원들의 분별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 협동조합은 좋은 여건과 충성도 높은 회원들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10여년간 한해도 영업 이익을 낸 적이 없는 부실경영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합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웨스트물 건물 가치 상승이 없었다면 조합은 이미 일찌감치 형해화됐거나 폐업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지난날의 협동조합 운영진은 상위법인 캐나다 협동조합법을 위배하며 회원들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소수의 지지세력을 이용해 조합을 부실화시키고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현재 조합은 연간 30만 불에 가까운 은행 이자를 물고 있는 터에 이전비용 100만 불을 더 출혈하면서 새로운 매장을 추가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웨스트물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조합의 막대한 금융비용을 없애고 잔여유여자금으로 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 힘겹게 영업하는 회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자는 순수한 목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조합을 생각하지 않고 협회만 생각했다면 적정 건물 매입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앞에서도 보셨듯이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협회 이사와 조합 운영이사들 모두 결의해준 사안입니다. 두 조직이 상생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기회도 드렸지만 별다른 대안 제시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며 회원과 주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협회 회장이 조합 일에 너무 많이 관여한다고 말하지만 지금껏 진행되어 온 일들이 회장의 의지가 없이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조합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협회에 구원을 요청해왔고 이에 부응해왔던 협회이기에 그 공동체적 정신에 입각한 책무감이 조합일을 수수방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원들의 재산을 찾고 지키는 일은 회장이 수행해야 할 일 중의 으뜸입니다. 앞으로도 이 임무는 계속될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회장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라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실험 총회와 조합 주총에 꼭 참석하시어 두 조직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파수꾼이 되어 주실 것을 깊이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면에 이어> 신재균 회장, UKCIA회장 공식 임기 시작

과 인턴 직원 그리고 행사 참가자들 모두는 주변과 뒤에 도열해 함께 묵념하며 헌화식을 지켰다.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경청하며 동료들의 희생과 용기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찬 겸의 의원들과의 네트워킹

의사당 내 별도의 방에 마련된 오찬장은 한식 부페로 차려졌으며 연아마틴 의원이 미리 수배한 상·하원 의원들과 함께 즐기며 환담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참석한 의원들을 연아마틴 의원이 일일이 소개했고 각자가 우의를 다지는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함께한 의원들의 면면은 오른쪽 사진과 같다.



▲ 오찬을 함께 한 의원들. 위 왼쪽부터 상원 보수당 마이클 맥도날드(Michael MacDonald)의원, 하원 보수당 제이미 슈메일(Jamie Schmale)의원, 아래 왼쪽부터 블레이크 리차스(Blake Richards)의원, 밥 사로야(Bob Saroya)의원. 이들은 연아마틴 의원이 이끄는 한카의원친선협회 소속 정치인들이다.

대사관 방문

UKCIA회원들은 국회에서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5시 전후한 시간에 국회를 나와 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다. 신맹호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이 반갑게 맞았고 대사관측에서 준비한 한식 부페로 저녁식사를 하며 환담을 나눴다. 식사 전에 간단한 행사도 가졌다. 신대사의 환영 메시지와 연아마틴 의원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으며 UKCIA기장(旗章)을 신 대사로부터 전달받아 신임 신재균 총연회장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세레모니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연아마틴 의원은 보좌관들을 대동하고 UKCIA측과 대사관측의 네트워킹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까지 대사관 밖에서 일일이 작별의 악수와 인사로 배웅했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된 분주한

발걸음은 저녁 7시가 조금 지나서야 멈춰섰고 보람있고 자부심 넘치는 마음을 안고 저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귀로에 올랐다. ■

캐나다한인여성회

2018년 10월 프로그램

제12회 KCWA미술전시회-그리며 생각하며-
-장소: KCWA노스옥
-일시: 10월23일(화) 오후1시~7시

<p>세이프 클럽</p> <p>■ 일시: 10월 3, 10, 17일 (수) 오전10시 - 오후11시30분</p> <p>■ 장소: 갤러리아 스텔점 (7040 Yonge St, Thornhill)</p> <p>■ 담당: 가정상담원 박주연</p> <p>■ 내용: 정착 영어와 캐네디언 문화 배우기</p> <p><small>*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자 및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남녀 *영어특별 중급 또는 중급이상 *사전등록 필수</small></p>	<p>성장하는 엄마 아이의 마음을 아는 엄마</p> <p>■ 일시: 10월 5, 12, 19, 26일 (금) 총 4회 오전10시 - 오후12시</p> <p>■ 장소: KCWA 노스옥</p> <p>■ 담당: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오신성희</p> <p>■ 내용: 1.성격유형으로 풀아가는 자녀와의 소통의 기술 2.불안하고 화나는 감정 돌보기 -아이가 엄마에게 화내는 진짜 이유 3.스마트폰과 게임에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 4.성장하는 엄마, 아이의 마음을 아는 엄마</p> <p><small>*정원 20명 (사전등록 필수)</small></p>	<p>혼자하는 영주권 갱신</p> <p>■ 일시: 10월 9일 (화) 오후6시 - 오후7시30분</p> <p>■ 장소: KCWA 노스옥</p> <p>■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p> <p>■ 내용: 1.영주권자의 거주무 규정 2.영주권카드 신청 및 갱신 안내 3.준비서류와 진행 4.신청서 작성의 실제 5.사례 나누기 및 질문과 답변</p> <p><small>*사전등록 필수</small></p>	<p>배우자 초청 안내</p> <p>■ 일시: 10월 11일 (목) 오후6시 - 오후7시30분</p> <p>■ 장소: KCWA 노스옥</p> <p>■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p> <p>■ 내용: 1.스폰서십의 의미와 자격 2.배우자 초청 이민 절차 3.신청서와 준비서류 4.질문과 답변</p> <p><small>*사전등록 필수</small></p>	<p>캐나다 시민권 시험준비반</p> <p>■ 일시: 10월 13일 (토) 오전10시 - 오후4시</p> <p>■ 장소: KCWA 다운타운</p> <p>■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p> <p>■ 내용: 1.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2.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3.캐나다 정보, 사법 시스템 4.캐나다 상점, 경제, 지리 5.문제풀이</p> <p><small>*등록비\$20 (사전등록 필수)</small></p>	<p>활기찬 노후 준비 시리즈</p> <p>■ 일시: 10월 16, 23, 30일 (화) 11월 6, 13일 (화) 총 5회 오전10시30분 - 오후12시</p> <p>■ 장소: KCWA 노스옥</p> <p>■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p> <p>■ 내용: 1.삶의 의미, 노후를 위한 재정관리 2.노인연금 3.정부 임대주택(노인 아파트) 4.유언과 상속 5.자원봉사, 헬스케어, 모지와 장례사전 준비</p> <p><small>*정원30명 (사전등록 필수)</small></p>
<p>알아두면 힘이 되는 개인상해정보</p> <p>■ 일시: 10월 18일 (목) 오후6시 - 오후8시</p> <p>■ 장소: KCWA 노스옥</p> <p>■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p> <p>■ 내용: 1.개인상해의 유형 2.자동차 사고 후 처리단계 3.온타리오 재해보상의 종류 4.개인상해 청구 소송 과정 5.질문과 답변</p> <p><small>*사전등록 필수</small></p>	<p>캐나다 국제청과 함께하는 세금보고 자원봉사활동 안내</p> <p>■ 일시: 10월 22일 (월) 오후6시 - 오후8시</p> <p>■ 장소: KCWA 노스옥</p> <p>■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p> <p>■ 내용: 1.세금보고 자원봉사활동이란(CVITP)? 2.CVITP 자원봉사자가 되는 방법 3.CVITP프로그램의 장점 4.자원봉사활동과 경력의 연계 5.성공사례</p> <p><small>*사전등록 필수</small></p>	<p>전문 기술직 취업 시리즈 1 -전기 기술자 설명회-</p> <p>■ 일시: 10월 23일 (화) 오전10시 - 오후12시</p> <p>■ 장소: KCWA 노스옥</p> <p>■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p> <p>■ 내용: 1.전기기술자 교육 지원 자격 조건 2.교육내용 및 자격증 취득 안내 3.교육일정, 장소, 시간, 수업 시간표 4.질문과 답변</p> <p><small>*사전등록 필수</small></p>	<p>안전하고 신나는 Halloween 준비하기</p> <p>■ 일시: 10월 24일 (수) 오전10시 - 오전11시30분</p> <p>■ 장소: 갤러리아 스텔점 (7040 Yonge St, Thornhill)</p> <p>■ 담당: 가정상담원 박민희</p> <p>■ 내용: 1.할로윈의 유래와 의미 2.호박의 의미와 유래 3.사탕을 주고 받는 이유 4.Trick or Treat 영어로 연습해 보기 5.사탕대신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품 아이디어</p> <p><small>*사전등록 필수</small></p>	<p>온타리오주 대학 입학안내</p> <p>■ 일시: 10월 25일 (목) 오후6시 - 오후8시</p> <p>■ 장소: KCWA 노스옥</p> <p>■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p> <p>■ 내용: 1.온타리오주 대학 소개 2.학교/학과 선택시 고려할 사항 3.온라인 지원서 작성방법 4.질문과 답변</p> <p><small>*사전등록 필수</small></p>	<p>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가정법 안내</p> <p>■ 일시: 10월 31일 (수) 오전10시 - 오전11시30분</p> <p>■ 장소: 갤러리아 스텔점 (7040 Yonge St, Thornhill)</p> <p>■ 담당: 가정상담원 박주연</p> <p>■ 내용: 1.가정법 법률 안내 2.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 3.법원의 위기와 저소득층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4.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 안내</p> <p><small>*사전등록 필수 *개별적인 법률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small></p>

등록 및 문의: 416-340-1234 www.kcwa.net
KCWA 다운타운: 27 Madison Ave, Toronto | KCWA 노스옥: 540 Finch Ave. W, 2nd Fl, Toronto

토론토 총영사관 정착 서비스
일시: 10월 15일 (월) 오후1시30분 - 오후4시30분
장소: 토론토 총영사관

커뮤니티 자원봉사
일시: 10월 13일, 27일 (토) 오전10시 - 오후2시
장소: Good Shepherd Ministries

Funded by: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Financé par: 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

TORONTO

TD

주토론토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미국 최고의 육류 스낵 캐나다 상륙!

드디어 판매 시작

인기 품목과 소비자 기호를 최대 활용하십시오.

육류 스낵은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품목의 하나로 특히 주유소 및 편의점에서 12%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내 판매되는 육류 스틱 스낵 5개 중 3개가 Slim Jim입니다.

Slim Jim은 미국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년간 연 평균성장률 +9%

고유의 과감하고도 독특한 맛이 13-17세 청소년들이 Slim Jim을 찾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먹어보고 느껴보십시오.

이러한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직접 공략하는 타 육류 스낵브랜드는 없습니다.



SLIM JIM GIANT ORIGINAL	6/24/27.5G
SLIM JIM GIANT MILD	6/24/27.5G
SLIM JIM GIANT TABASCO	6/24/27.5G
SLIM JIM MONSTER ORIGINAL	6/18/55G
SLIM JIM MONSTER TABASCO	6/18/55G
SLIM JIM MILD BEEF N' CHEESE	6/18/42G

Source: ¹IRI 52 Weeks ending 01/21/2018. ²Nielsen Convenience Track, National C&G, Latest 52 Weeks Period Ending August 19, 2017 vs August 20, 2016. ³IRI MULCO+C Sales CY14 - CY16; 16-074 Meat Snacks AAU - Final Report 2016 *Meat Snacks Category Users; n=1,005





마진을 좋고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 외연 넓혀

육포 슬림짐으로 대박치는 콘아그라

지난 5월 단체계약을 체결한 신규발굴 제휴업체 콘아그라(Conagra Brands Inc.)와의 사업이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 종합식품제조회사인 콘아그라는 여성, 아동 시장까지 확대하기 위한 육포회사들의 '부드러운 맛' 대세를 선도하며 창의적인 신제품 시리즈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다. 회원들도 앞다퉈 취급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고.

주력 저키 브랜드로는 Duke's Meat Snacks, Slim Jim Meat Sticks 등이 있고 이외의 인기 주전부리로 Bigs Sunflower & Pumpkin Seeds, Orville Popcorn, Crunch'n Munch 등이 있다. 현재 협회에는 프로그램스토어 가입 회원뿐 아니라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전 제품에 대해 40% 마진을 보장해주고 있다.

콘아그라의 역사는 1919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미국 네브라스카의 밀가루 공장에서 출발해 중간에 회사명을 개명도 하며 성장한 콘아그라는 현재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산하 종업원 1만 3,000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 메이저 식품기업으로 위세가 대단하다. 2017 기준으로 매출 78억 달러를 상회했다. 지난 6월 말에는 100억 달러 이상의 또 다른 식품기업 파나클 푸즈(Pinnacle Foods)를 인수한다고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협회와 제휴관계를 맺은 콘아그라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관측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실험뉴스 광고 1년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한편, 배달은 '메트로360'(구 Metro News)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메트로 측도 콘아그라 제품만이 아니라 자사 제품 건강스낵도 함께 공급해 회원들이 다양한 스낵제품을 취급하는데 편의를 누리고 있다. 메트로의 주력 인기 제품으로는 Handfuel, Cookie Plus, Gorp 등이 있으며 회원들도 많이 취급하고 있다. 조합에서도 취급한다. ■

DUKE'S

Freshly Crafted Smoked Meats

천연 통째 재료 훈제육

소량의 설탕 사용

얼리지 않은 신선한 돼지고기

천연의 통째 재료

특별한 나무로 실제 훈제

소량 분배 생산 표시

193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BIGS

단백질 가득! 맛과 향이 풍부!
시드(SEED) 스낵!

직화구이

VS.

최고급 점보 씨앗

풍부한 맛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오타와 경제포럼 주요 장면

지난 9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된 오타와 경제포럼 행사 주요 장면을 확보로 꾸몄다.



상원 본회의장을 방문한 경제포럼 참석자들. 연아마틴 상원 의원 그리고 일정진행 도우미로 나선 국회 인턴 직원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가 경제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UKCIA측은 영세자영업 영업환경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 제거에 정치인들이 힘을 쏟아줄 것을 역설했다.



한국전 참전 전몰 용사비 헌화식이 끝난 후 생존 베테랑들과 기념촬영을 가진 UKCIA지회장들.



경제포럼 참가자들이 한카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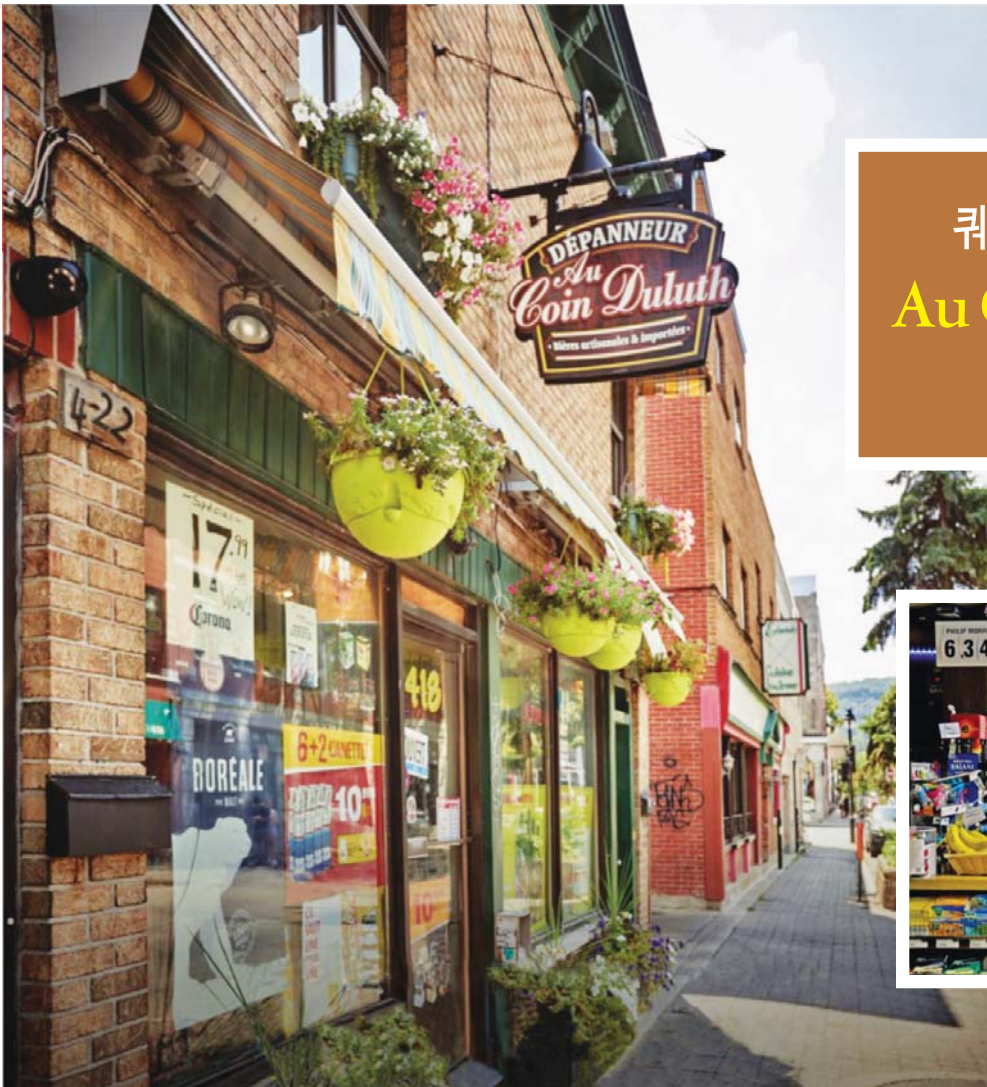
UKCIA신임 총연합회장에 취임한 협회 신재균 회장이 취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차총회가 끝나고 회의에 참석한 UKCIA정회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가졌다.



주캐나다 대사관에서 베푼 만찬에 참석한 UKCIA회원들. 이 자리에서 신맹호 대사 주관하에 문장(紋章)이 새겨진 오각 UKCIA단체기 전달식을 가졌다. (중앙이 신 대사, 왼쪽이 전임UKCIA 박진철 회장, 오른쪽이 신임 신재균 회장.)



퀘벡의 편의점 Au Coin Duluth 이야기

로컬 맥주 포함
400종 맥주 취급



▲ 예술적 분위기까지 풍기는 편의점 '오 꾸앵 뉘뤼쓰'. 250가지 퀘벡 지역 특산 맥주 취급 업소로 퀘벡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편의점이다. 비즈니스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이디어와 용기로 일군 모범적인 편의점 성공담이다. 내부에 들어가면 카운터 주변은 일반 편의점과 다르지 않다.

실협뉴스에 독특한 편의점을 소개하다보면 주로 이목을 끄는 독특한 편의점들은 퀘벡쪽에 많이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영국계와 프랑스계의 기질적 차이인가, 같은 편의점임에도 기발하고 창의적 편의점이 퀘벡 쪽에 주로 몰려있는 것을 보면 이런 평이 근거가 없지는 않는 것 같다.

이번에도 역시 퀘벡의 한 편의점 이야기다. 몬트리올에 있는 이색 편의점 '오 꾸앵 뉘뤼쓰(Dépanneur Au Coin Duluth)를 소개한다. 이 업소는 두가지 점에서 이목을 끈다. 첫째는 주인의 친절함이다. 둘째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맥주를 취급한다.

주인 클레르몽 클루티에(Clermont Cloutier)씨는 지난 40여 년을 편의점 운영에 바친 인생이며 큰 성공을 나뉠 거뒀다고 자부한다. 그는 운영 초기부터 하나의 요령을 터득했는데 다음이던 미소전략이었다. 미소의 파워에 대한 그의 믿음은 대단하다. "모든 사람이 웃음이 가지는 진가를 안다. 웃음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한다." 뭐 별 철학도 아닌 평범한 진리다. 실천을 못할 뿐이다.

그런데 그냥 주인의 웃음만으로 끝났으면 편의점 하나 운영하며 뭐 그리 대단한 성공까지야 거뒀겠는가. 웃음에서 이어지는 독특한 품목이 바로 맥주였다. 퀘벡에서 맥주는 편의점에서 다 파는 물건인데 이걸 또 뭐가 그리 대단한가? 그렇다. 클루티에씨가 취급하는 맥주는 각별하다. 일단 엘프에서 이 업소 맥주와 관련해 평가한 극찬을 한번 듣고 이야기를 풀어보자. (엘프Yelp는 온라인 최대 지역 소매업소 리뷰 사이트임) 『맥주 감식가에게는 최고의 선택. 구하기 힘든 퀘벡 로컬 맥주 출시 때마다 이곳에 오면 이들은 반드시 있다』 (A great selection for the beer connoisseur. Whenever a QC microbrewery releases something difficult to find, they have it.) 또, "평범한 라거 맥주로 더 이상 성에 차지 않을 때 찾아오면 딱인 곳. 여기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는 표현도 있다.

일개 편의점에서 유명 브랜드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 특산 맥주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보니 이 업소 맥주 손님은 그 지역 손님만이 아니다. 퀘벡 지역 전체는 물론 전국 그리고 더 나아가 해외에서까지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20면에 계속)



▲ 비운의 천재 작곡가 김순남은 얼굴도 꽃미남이었다. 그가 작곡한 대표적인 작품인 산유화 악보.

지난 9월 남한 대통령이 북한 수령을 만나러 평양을 2박 3일 방문했다. 비핵화를 이뤄 미국과의 전면적 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 상호간의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해소에 관한 진일보한 합의를 위한 방문이었다.

국빈 방문이 항상 그러하듯 상대국 체류 중에 퍼스트 레이디들의 행사도 분주하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도 여러 시설들을 돌아봤는데 그 중 한 곳에 눈길이 쏠린다. 이름하여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金元均 名稱 音樂綜合大學)이다. 다른 장소야 대략 익숙한 곳들이라 그리 궁금할 것이 없으나 이 기관은 처음 접하는 곳인데다가 대학 이름도 예사롭지 않다.

유일 통치체제하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면 모를까 도대체 김원균이 어떤 인물일까 북한 음악대학 앞에 저리 당당하게 그 함자를 갖다 붙였을까. 이번 실협뉴스 교양상식은 북한에서 추앙받는 작곡가인 이 인물과 더불어 또 한명의 동시대 작곡가였던 김순남(金順男)이라는 인물을 함께 소개하며 운명의 쌍곡선을 그린 두 작곡가의 명암을 대비시켜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에서 최고의 대접과 호사를 누리다가 행복하게 생을 마감한 김원균보다는 김순남의 기구한 생애에 조명을 집중하려 한다. 둘다 1917년생 동갑이다. 그리고 보니 통영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도 1917년 생이다. 혼돈의 해방공간 그리고 이후의 살벌한 이념 대립의 한반도에서 쓸쓸히 퇴장하고 잊혀진 비운의 작곡가 김순남을 새삼 떠올리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새로워진다.

■ 김원균(金元均)

설명 필요없이 북한측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꽤나 이런 저런 자료들이 많으나 북한에서의 그의 위상은 북한 스스로가 가장 잘 드러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는 노동(로동)신문 2017년 1월 27일 기사다. 헤드라인은 『작곡가 김원균 생일 100돐 기념음악회 진행』이라고 뽑고 기사는 이렇게 이어진다.

『작곡가 김원균 생일 100돐 기념음악회가 26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탓에 자기의 천성적인 재능마저도 꽃피울수 없었던 김원균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은혜로운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참다운 예술창조의 길을 걷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인생의 참된 길을 걸은 그는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 음악작품창작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과정에 김일성상 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예술가로 성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지

雙曲線 그린 운명의 두 작곡가



칠줄 모르는 창작적 열정을 지니고 절세의 위인, 민족의 태양에 대한 혁명송가와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수많은 음악작품을 창작한 작곡가의 공로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생일 100돐을 맞으며 기념음악회를 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된 음악회무대에는 혁명적인 명작창작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온 인민예술가 김원균의 작품들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 남성합창 《우리의 최고사령관》, 합창 《우리는 천리마라고 달린다》, 혼성2중창과 합창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년대마다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런 투쟁행로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게 하는 종목들은 장내를 무한히 격동시켰다. ...음악회는 관현악과 합창 《애국가》로 막을 내렸다. ...』

그리 길지않은 스트레이트 기사임에도 김씨 3대의 이름앞에 무슨 점두 어처럼 '위대한', '경애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7번이나 반복해 등장한다. 부모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인 '슬하'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사실 기사의 무게는 작곡가 김원균보다는 김원균을 키워주고 보살피겠다는 김씨 가문을 더 칭송하고 있다. 북한도 이런 투의 기사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여하튼 김원균은 북한의 예술분야에서 대단한 존재다. 일단 북한의 국가인 '애국가'를 작곡했으니 (1947년) 두말할 나위가 없겠거니와 이보다 한해 전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작곡한 자이다.

위 기사에서도 보듯 음악회가 열리는데 그 첫 곡이 '김일성장군의 노래'라 하지 않는가. 원산출신으로 한국전쟁의 와중인 1952년에 김일성의 지시로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으로 유학을 갈 정도였고 59년까지 긴 유학생활을 하는 특혜를 누렸다. 이후 북한 음악계는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음악예술 전문교육기관의 장을 도맡았으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한국의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김정일과는 호호 이 잘맞아 많은 창작활동에 돌이 함께 했다. 2002년 85세로 사망했으며 사망 직후 김정일은 즉각 화환을 보냈다.

■ 김순남(金順男)

해방 후 남쪽은 정치적 혼란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에서도 이념적 갈등이 컸다. 전체적 지형에서 볼 때 친일 예술인들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의 비호하에 문화권력을 독점해나가는 가운데 진보 또는 좌익적 성향의 예술인들은 설 자리가 없었고 대대적인 좌익 체포령이 내려지자 월북을 하는 인사들이 많았다.

서울 종로 낙원동에서 태어나 일본 유학도 다녀온 김순남은 이미 일본의 클래식 음악계에서 대단한 존재로 각인돼 있었다. 그런 그가 해방공간에서 고심했던 것은 우리의 민족 가락을 서양의 화성악으로 오선지에 그려내는 참으로 대담하고도 창의적인 작업이었고 성공을 했다.

일본가락에 젖어있던 친일계 음악인들이나 아예 창이나 타령조로 돌아가자는 맹목적 복고주의 음악인들을 모두 물리치고 독보적인 길을 걸었으니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 중 이미 우리 귀에도 익숙한 '산유화'(山有花)라는 작품을 대하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와닿을 것이다. 조수미가 불러 대중화된 이 곡은 김소월의 시로도 유명하다. 지역 특수성과 세계화를 조화시켜 새로운 미적 감각을 창조해내는 일에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런 자를 천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김순남을 한국 현대 민족음악의 시조라 불러 마땅하다.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우리 가락을 담아 낸 가곡집이 3권, 남북을 합해 한반도 최초의 교향곡,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으며 수많은 실내악곡에 이르기까지 당대 최고 수준의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다. 해방되자마자 그 시절 사람들이 입에 달고 부르던 '건국행진곡', '해방의 노래', '농민가' 또한 그의 주옥같은 작품들이다.

그가 결정적으로 월북할 수 밖에 없었던 작품은 미군정의 실정에 항거한 대구 10.1만중 봉기(1946년)를 기리기 위해 작곡한 '인민항쟁가' 때문이었다. 북한에서 아직 국가가 작곡되기 전에는 마치 국가처럼 널리 불렸고 남쪽에서도 당시 많이 불렸던 노래였지만 남쪽에서 우익 정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좌익 검거 선봉이 벌어지며 금지곡이 됐고 체포령이 내려진 김순남은 고향인 서울을 버리고 48년 여름에 월북을 하게 된다. 가까운 음악 천재의 슬픈 운명은 이렇게 시작됐다.

월북하며 혈육인 딸 하나를 서울에 남겼는데 그 딸이 바로 성우, 음악프로 진행자로 유명한 김세원씨다. 아직도 그녀의 축축히 젖은 듯 차분한 목소리로 진행되던 '김세원의 영화음악실', '밤의 플랫폼' 등이 귓전에 맴도는 듯 한데 평생 얼굴도 못본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그녀도 어느덧 70을 훌쩍 넘겼다. 지금도 여전히 JTBC예능프로 '한끼줍쇼' 등 방송 활동에 열심이다.

월북 전의 유명한 일화 하나. 음악 명문 줄리어드 스쿨을 졸업했고 당시 한국에서 미군정청 문화담당 참사관을 지내던 육군 대위 일라이 헤이모위츠(Ely Haimowitz, 1920 ~2010)는 그의 몇몇 악보를 보고는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그가 척결의 대상인 좌익계 인물이거나 말았거나 자신의 모교에 그의 악보를 보낸 후 이 자를 받아들여줄 것을 청한다. 줄리어드 쪽에서도 악보를 보고 비범함을 알아채리고는 입학 허가서를 내렸고 허가서를 받아든 헤이모위츠는 동네 방네 수소문 끝에 김순남과 단독대면을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는 아무생각말고 줄리어드에 가서 몇년만 있어달라고 청을 하는데 역시 천재는 오만이 훈장인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우정의 관계였다고 하는데 대위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얼마 안돼 그도 월북하면서 남쪽에서 얻은 천재일우의 기회는 이렇게 물거품이 됐다. 헤이모위츠는 김순남을 일컬어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이자 진정한 창조적 천재"라고 평가했다.

북으로 간 김순남은 그야말로 영웅이었다. 앞의 김원균이 북한 국가(國歌)를 아직 만들기도 전에 이미 국가에 준하는 인민항쟁가의 작곡가였으며 정치적으로도 좌익이었으니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그를 평양 음대 학부장에 여러 음악 단체 고위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는 정치적인 자리까지 여겨주며 융숭히 대접했다. 그 역시 한반도 최

초라 할 오페라 '인민유격대', 오라토리오 '승리' 라는 대작으로 보답하며 북에서도 정렬적인 작품활동에 전념했다.

북한은 한국전쟁의 와중에 앞의 김원균과 더불어 김순남 역시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으로 유학을 보냈다. 당시 이 음악원에는 쇼스타코비치, 아람 하차투리안과 같은 당대 최고의 걸출한 작곡가들이 교수로 있었고 하차투리안은 김순남이 아직 유학 오기도 전에 그의 악보를 보고는 "사회주의의 별이 될 작곡가라고 극찬했다는데 그의 작품 '조선빨찌산의 노래'라는 합창곡을 오케스트라곡으로 편곡해 김순남이 유학오자 헌정을 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렇게 그는 미소 두 강대국에서 인정한 천재 작곡가였지만 남과 북 양쪽으로부터 버림받는 기구한 운명의 작곡가였으니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까지 유학갈 정도로 잘 나가던 김순남에게 북한 정부는 느닷없이 소환 명령을 내린다.

소위 패전 책임론을 빌미삼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의 희생물이 될 참이었다. 북한은 6.25전쟁 후 김일성이 권력을 공공히 하기 위해 라이벌이 될 소지가 있는 리더들을 전쟁 패배 책임과 이후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차례로 제거 작업에 나서는데 중국 배경의 공산주의 그룹 연안파, 소련파, 박헌영의 남로당파 등은 당시 김일성보다 훨씬 세력이 컸던 그룹들이었다. 그리고 첫 숙청 대상이 박헌영의 남로당 계열이었으며 이 글의 주인공 김순남은 박헌영과 친분이 있었던 것이 화근으로 작용한 것이다. 직전까지만 해도 인민의 영웅이 줄지에 반동부르조아 음악가이자 미제 간첩질을 한 박헌영의 줄개로 매도당하며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

당시 소련에 유학가 있던 술한 사람들이 소환명령에 불응하고 망명을 하는 통에 유일하게 김순남은 태연히 북한으로 들어간 것부터 잘못된 길이었는지 모른다. 남쪽에서 줄리어드 음대를 거절한 오만하고 비슷한 심리이지 않았을까 싶다.

다른 숙청 대상자도 아니고 천하의 박헌영을 미제국주의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처형하는 판에 그와 친분이 있고 남로당 당원이기까지 한 이력을 새삼 들먹이며 숙청시켰으니 재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인물이 된 것이다. 판결은 아주 잔인해서 차라리 사형이 더 나을 수도 있었겠다. 예술가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창작활동 금지'였다. 1953년의 소환과 숙청으로 그의 예술가로서의 삶은 딱 그 시점에서 끝났다. 복사가기가 아직 없던 시절 시골구석 어딘가에서 구질구질한 선전선동 노래의 악보 필사쟁이가 다 시 말해 인간복사기를 하며 연명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통탄스러운 천재의 말로가 아닐 수 없다. 그가 도대체 언제 죽었는지조차도 명확치 않다.

60년대에 복권된 것은 사실인 것 같으나 83년 혹은 86년 혹은 60년대에 말에 죽었다는 등 사망연도를 중구난방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봐 전혀 존재감없이 살다가 북한에서 그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은 인물로 세상을 뜬 것이다.

덧없는 이데올로기와 권력투쟁의 희생으로 남북 양쪽에서 잊혀진 비



▲ 천재를 알아본 음악인들인 미국의 헤이모위츠와 소련의 하차투리안.

운의 천재 민족음악가 김순남을 새삼 추모하며 이즈음 돌아가고 있는 남북화해무드가 더 앞당겨져 양측의 음악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의 북한에서의 삶이 있는 그대로 재조명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편의점과의 긴 인연

클루티에씨는 술장사는 고사하고 편의점이라는 것을 운영하리라고는 스스로 상상도 못했었다. 1980년대 초 그는 한 에너지 회사에서 운임원가 담당관을 지내고 있었는데 대형 수압프로젝트 사업이 끝나면서 그의 자리도 필요가 없게 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월급쟁이 말고 진짜 나의 사업을 하고 싶었다.” 당시를 회상하며 그가 한 말이다. 그는 몬트리얼 토박이다. 몬트리얼 동쪽 끝자락 근처의 빌르당주(Villed'Anjou)라는 지역에서 성장했다.

퇴사 후 그는 빌르당주 근처의 뽀앵또 트랑블(Pointe-aux-Trembles)이라는 동네에 있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프로비수아르(Provi-soir)의 영업권을 2만 달러에 구입했다. 이것이 그가 편의점과 맺은 첫 인연인데 클루티에씨는 이것이 자기 일생 최고의 투자였다고 뿌듯해하며 이렇게 추억한다. “편의점이 뭔지 아무 것도 모르던 나한테 이 체인 편의점은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훌륭한 학교였으며 큰 후원자 역할을 했다.”

프로비수아르는 캐나다 편의점 지존인 쿠쉬타르 알리망타시옹이 인수해 간판명도 쿠쉬타르였다가 이후 다시 되찾은 이름이다. 쿠쉬타르 산하에서 예외적으로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가 편의점을 하며 얻은 즐거움이랄까 보람은 사람을 사귀고 대인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다. 단순한 주인대 고객의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인간적 교분이 그에게는 의미가 컸다.

클루티에씨는 이후에는 갈라져 그냥 사업파트너가 됐지만 당시의 아내였던 장닌 튀르코뜨(Jeannine Turcotte)와 함께 각자가 주당 50~60시간씩 일했다. 그것도 어린 두 아들을 키워가면서 했으니 대단한 노동강도였다. 이후 또다른 프로비수아르 가맹점 하나를 더 매입해 두사람이 하나씩 켜고 운영했는데 일이 워낙 많다보니 결혼 생활도 온전치 못했다.

그는 이후 아내와 갈라섰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 뜯기는 것이 신물이 나던 차라 두 가게를 접고 몬트리얼 다운타운 플라투(Plateau)지역에 독립적인 자기 소유의 가게를 시작했다. 이 지역은 캐나다에서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심지구 중 하나로 그는 지금도 이 지역에 대한 매우 좋은 인상을 간직하고 있다. 완전히 자기 소유인 이 업소 이름은 레삿쓰리 부슈리(LEpicerie - Boucherie)라고 불리는데 겨우 400평방피트 남짓한 정말 초미니 가게였다. 이 가게를 2008년까지 운영하다가 비로소 지금의 ‘오 꾸앵 뉘뤼쓰’를 인수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먼저 주인 까메린느 부셰라는 여자는 비즈니스하고는 영 거리가 먼 사람이라 절절 매던 차에 서로가 가게를 인수인계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됐다.

로컬 비어의 메카!

클루티에씨가 제대로 된 편의점 운영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앞서 몇 차례 프랜차이즈 업소와 독립 업소를 거친 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판노 ‘오 꾸앵 뉘뤼쓰’부터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앞서 운영했던 것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여기서 얻은 노하우와 인내력이 밑거름이 돼 지금의 편의점이 본 궤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때보다 비즈니스 활동으로 활력과 의욕이 넘쳐나고 있다. 아들 이안(Yan)과 작업해 가게 규



▲ 퀘벡 지역 맥주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클루티에씨의 편의점 맥주 진열 모습

모를 두배로 키웠다. 주목할 것은 전문적인 냉장 시설을 갖추고 전국 브랜드 맥주만이 아니라 퀘벡 특화 지역 맥주까지 취급하는 편의점으로는 퀘벡에서 첫번째 업소가 됐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결단한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퀘벡 지역 맥주까지 취급하겠다는 결심도 대단하지만 그 무렵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리커 스토어가 근처에 오픈했기 때문에 이는 정면 경쟁상태에 처하는 셈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클루티에씨는 맥주 하나로 완전히 차별화된 편의점이 되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했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돌이켜보면 무모해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매우 현명한 행동이었다.

오늘날 클루티에씨의 오 꾸앵 뉘뤼쓰에서 취급하는 퀘벡 특산 지역 맥주는 대략 250종이다. 여기에 일반 브랜드 150종을 보태면 무려 400종이다. 가끔 가다가 신종 맥주가 출시되면 맥주 시음회도 연다. 이 업소의 독특한 맥주맛에 감탄한 수많은 고객들이 SNS를 통해 자신들의 인상이나 평을 가감없이 올리는데 칭찬 일색이다. 엘프(Yelp)에서 평가된 몬트리얼 지역내 상위 랭킹 10대 편의점에도 당당히 올라 있다.

퀘벡산 와인까지 포함해 술 종류를 선택하는 탁월한 안목은 그의 아들과 또 오랜 세월 헌신적으로 일해온 종업원 데이빗 새뮤얼 덕분이다.

클루티에씨는 “이름값을 한다는 많은 레스토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가게에서 그 다양한 맥주와 와인의 경험을 이겨내고 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 두사람 공이 크다”고 추켜 세운다.

지난 2011년 클루티에씨는 또 한차례 과감한 일을 저질렀다. 1백만 달러도 더 들여서 로즈몽 근처 콘도가 빼곡히 들어서있는 54구역에 4,000평방피트 규모의 정말 멋드러진 음식 가게를 차렸다. 이 업소는 아들 이안 부부가 운영하는데 여기도 오 꾸앵 뉘뤼쓰에서 취급하는 맥주와 와인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내년이면 70세가 되는 클루티에씨는 지금 그의 긴 세월 편의점 경력을 서서히 접고 은퇴준비를 하는 중이다. 그의 감회에 가득찬 말로 글을 맺는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나 혼자 가게문을 열기를 30년 세월이었다. 다만 건국절(7월 1일) 하루만 30분이 늦은 7시에 열었다. 그리고는 다른 볼 일로 가게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아침 9시 혹은 10시까지지는 반드시 가게를 지켰다. 앞으로 몇년간은 한시간 늦게 오픈하는 것이 내 계획인데(* 이 말은 그의 농담이다.) 그러다 보면 은퇴할 때가 될 것이다.” ■

OKBA 지구협 회장 전화번호

- 광역토론토 지구협회 -

-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 895 - 1277
- New Market**
회장 금동진 (905) 836 - 6429
- North York**
회장 김정렬 (416) 665 - 6709
- Peel**
회장 이수봉 (905) 813 - 1333
-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 471 - 8079
- Scarborough**
회장 엄종호 (416) 759 - 4503
- Toronto East** GTA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김종범 (416) 363 - 9404
-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 975 - 0365
-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 604 - 3116

- 남서부 지구협회 -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 (519) 756 - 0099
-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 (905) 679 - 4812
- London** 남서부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오세정 (519) 432 - 6672
-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 (905) 354 - 1313
- Waterloo**
회장 최상경 (519) 579 - 8130
- Windsor**
회장 이응학 (519) 734 - 7111

- 동북부 지구협회 -

- Durham**
회장 이현식 (905) 579 - 2500
- Huronia**
회장 진재원 (705) 487 - 2005
-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 967 - 9998
-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 323 - 4311
- Peterborough**
회장 홍성훈 (705) 652 - 6323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OKBA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it features the OKBA logo and the text 'OKBA 온타리오 한인사업인협회'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Below this,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공지사항' (Notice), '실협뉴스' (Member News), '게시판' (Forum), '실협뉴스PDF 보기' (View PDF), 'KBA협동조합 스페셜' (Special), and 'KBA협동조합 공동구매' (Joint Purchase). A central banner promotes 'OKBA와 친구해요!' (Be Friends with OKBA!) with a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OPEN' (KakaoTalk Plus Friend Open) button.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veral advertisements for services like 'AVANTIS', 'Nestle', 'Frito Lay Special', 'Merchant Services', 'OKBA PROGRAM STORE', 'Moneris', and 'SOS SAVE OUR STORES'. A table lists various member benefits and programs, including 'Convenience U & CARWACS', 'Nestle Ice Cream Exc.', 'Weston Bakerys', 'South Cove', 'Merchant Services', 'OKBA Exclusive Deal', and 'SOS SAVE OUR STORES'. The bottom of the page features logos for 'JTI', 'RBH', 'Frito Lay', and 'Nestle',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rogram Store: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tario M9C 1C2' and phone numbers '(416) 789-7891' and '(416) 789-7834'.



OKBA PROGRAM STORE

컨비니언스의 미래

- 독립편의점 네트워크 구성 중점
- 프로그램 스토어 전담팀 운영
- 가입 업소 직접 방문
- 문제점 및 업소운영에 대한 상담
- 각 업소에 맞는 운영안 제시
- POS 시스템의 운영으로 자료 축적을 통한 공급,유통 환경 개선





■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 (416) 867-14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 담배회사 및 관련업체

Imperial Tobacco Canada ----- (800) 379-7629
 JTI MacDonald Corp ----- (800) 268-2068
 Rothmans Benson & Hedges ----- (800) 387-8555
 Kretek ----- (905) 625-1169
 House of Horvath Inc. ----- (416) 534-4254
 Scandinavian Tobacco ----- (866) 837-1807
 Casa Cubana ----- (514) 737-0066
 GVA Canada Inc ----- (416) 573-8085
 National Smokeless Tobacco Co. ----- (519) 208-5138
 Bic Inc ----- (416) 742-9173
 Nibo Group Inc. ----- (905) 479-0022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 (905) 568-7909
 (800) 387-8400
 Nestle Waters Canada ----- (519) 763-9462
 Lasseonde ----- (905) 791-5300

■ 우유

SAPUTO(Nelson Dairy) ----- (800) 663-4724
 Parmalat ----- (905) 829-0555
 Sealtest / Natrel ----- (416) 442-2300

■ 스낵

Frito Lay Canada ----- (905) 460-2414
 Old Dutch Foods Ltd. ----- (800) 387-2273
 Krispy Kernels ----- (800) 461-7337
 South Cove ----- (905) 829-3666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 (800) 500-5634
 Mars Canada Inc -----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Unilever Canada Inc ----- (866) 888-2775
 Fruti Distributing ----- (866) 663-3231

■ ATM / Debit

TD Merchant Services ----- (888) 663-6634
 Touch Cash -----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 Solution ----- 1- (888) 554-7355

■ 잡지

Metro News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 (905) 272-4339
 변호사 박재현 ----- (905) 527-0202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 (416) 250-3550
 외환은행 ----- (416) 222-5200
 TD한인금융센터 ----- (416) 250-5855 (손종호 ex 231)
 이방록 회계사 ----- (416) 221-2009
 오중찬 보험 ----- (416) 602-7083
 최창근 모기지 ----- (647) 928-7313
 이은진 회계사 ----- (416) 802-3870

■ 언론사

한국일보 ----- (416) 787-1111
 중앙일보 -----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 (416) 909-7114

■ 기타

Kocom -----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Label & Bag Depot ----- (416) 432-2937
 Ubix Communications ----- (416) 492-6022 (Ex.221)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달콤한 휴식

신제품

- 초콜릿 브랜드 1위
- KIT KAT, 해당 업계의 선두를 차지하며 14% 성장*
- 3가지 맛 출시



자세한 내용은
도매업자에게
문의하세요!



버블에서 ...느껴지는... 마성의 맛

- 시장 진출 기회 증대
- 더욱 세련된 모양
- 속 안을 가득 메우는 트러플

*Nielsen TL KIT KIT L12W p/e 2015년 12월 12일
상표 소유 / PROPRIÉTAIRE DES MARQUES: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A., VEVEY, SWITZERLAND / SUISSE.
라이선스 소유자 / LICENCIÉ: NESTLÉ CANADA INC., NORTH YORK, ON M2N 6S8.



2018.9.9~2018.10.6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8년 9월 9일부터 2018년 10월 6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uffles XL 2/\$6

Club Gold / Club Platinum / Club Diamond



Smartfood XL 2/\$6

Club Gold / Club Platinum / Club Diamond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